

## 1950년대 대중 잡지 『희망』의 미국 체험담 연구

최유희\*

1. 1950년대 잡지 『희망』의 미국체험담
2. 미국체험담의 기획
3. 동경과 경계의 양가성과 현실 재인식
  - 3-1. 문물에 대한 동경과 경계
  - 3-2. 공동체 문화에 대한 동경과 경계
  - 3-3. 현실 재인식과 재건 희구
4. 미국체험 서사의 주체와 의미
5. 『희망』의 재건 호들로지

### 국문요약

잡지 『희망』은 1950년대 대중종합잡지이다. 월간 『희망』은 1951년에서 1962년까지 출간되었으며, 주간 『희망』은 1955년에서 1958년까지 출간되었다. 이 글은 월간과 주간 『희망』의 미국 체험담에 나타난 동경과 경계 지점을 분석한다.

1950년대는 미국화의 시대였다. 1950년대 한국 등 전후 재건이 필요했던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가 필수적이었고 남한 지식인들의 미국 체험의 대부분은 미국의 원조로 이뤄졌다. 『희망』의 편집진은 저자들에게 미국의 사회적 상황뿐 아니라 주관적 판단을 드러낼 것을 요청한다. 이는 미국화에 관한 열망과 미국으로부터의 거리 두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편집진의 노력으로 보인다.

미국 체험담에서 필자들은 미국의 물질문명, 공동체 문화에 관한 동

---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조교수.

경 및 경계의 양가적 태도를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과 비교되는 한국의 현실을 재인식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물리적 공간의 발견이다. 미국의 마천루는 그들에게 충격이었으며, 전쟁 후의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에게 그 공간은 이질적인 것이었다.

미국인들의 도의심과 청교도적 전통에 대한 동경은 품지만, 인종 차별 문제나 가족의 분열 등의 공동체 파괴 현상에 관해서는 비판적 시선을 견지한다. 한편, 이들은 미국인의 한국에 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현실을 재인식하고 그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하거나 미국의 선진적인 민주주의 현실에 대비되는 한국의 비민주적인 정치 현실을 개탄하기도 한다.

『희망』의 재건 호들로지는 이러한 미국 체험 서사의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며, 『희망』은 1950년대 상황에서 재건의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데 집중한다. 유학생의 신분이든, 원조 회담을 위한 협상가로서이든, 재건 주택 설계를 위해 방문한 건축설계사로서이든, 한낱 여행객으로든, 이들의 여로와 체험담에서는 전후 재건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동인이 된다. 말하자면, 잡지 『희망』의 미국 체험담은 전후 재건의 ‘호들로지’를 보여주며, 당대 지식인의 미국에 관한 동경과 경계의 양가감정의 기록이다. 아울러, 이 글은 한국의 대중문화의 미국화와 1950년대 지식인들의 미국 체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동경, 경계, 양가감정, 재건, 호들로지(Hodology), 내핍, 미국화, 체험담, 1950년대, 잡지 『희망』)

## 1. 1950년대 잡지 『희망』의 미국체험담

1952년 3월 25일 외무부 장관 명의로 해외여행 제한 조치가 발표된다. ‘군사, 경제, 문화 등의 국책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경우’에만 해외여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전시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할 때는 언동을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sup>1)</sup> 1954년 3월 22일에는 해외여행자 제한 조치가 발표되고, 1955년 12월에는 해외여행 환금 중지를 알리기도 한다. 이처럼 1950년대는 정치·경제적 상황 때문에 제한된 사람들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다.

사회학자 정수진은 한국인의 세계감과 자의식 형성의 고리들을 타자를 통한 자아의 발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의 눈에 발견된 한국의 표상이 다시 한국인의 자의식에 각인되어 자아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sup>2)</sup> 이렇듯 이국 체험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을 서술하는 장일 뿐 아니라 주체를 객관화하여 자아정체성을 드러내는 매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국 체험담은 세계감각 형성의 기제들을 분석하는 재료가 된다.

195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 잡지 『희망』에는 다양한 이국 체험담이 실려 있다. 희망사는 『월간희망』과 『주간희망』을 발간하는데, 『월간 희망』은 한국전쟁기인 1951년 5월에 창간되어 1962년 3월까지 88호가, 『주간희망』은 1955년 12월 27일 창간되어 1958년 9월 19일자의 135호가 발간된다. 1950년대를 관통하며 잡지가 지속적으로 발간되었기에 잡지 『희망』의 이국체험담은 1950년대 시대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이국을 체험하

1) 『해외여행제한, 변장관 자숙 요망』, 『경향신문』, 1952.3.27, 2쪽.

2) 정수진, 『한국인의 세계감과 자의식의 형성-1950년대 관광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0호, 비판사회학회, 2011, 201-225쪽 참조.

면서 세계감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월간과 주간 『희망』의 이국체험담 가운데 미국 체험담만을 대상으로 미국에 관한 인식과 자아 발견을 중심으로 한 주체의 변화를 살펴본다.

1950년대는 미국화(Americanization)의 시대이다. 전후 재건을 위해 유럽, 아시아 등의 국가는 미국의 원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자립이 힘들고, 영국조차 미국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처지<sup>3)</sup>였다. 한국 또한 지나친 미국화를 ‘미국병<sup>4)</sup>’으로 표현하며 비판할 정도로 미국에 관한 관심과 경계심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미국의 지배력 강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상황에서 남한의 지식인들은 미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그 체험담이 잡지 『희망』에 게재되어 있다.

한미재단 지원으로 미국 연수를 다녀온 전숙희, 대한해운공사에서 월급 대신 미국을 둘러보게 된 박인환 등 문인들의 체류기와 한미경제원 조회담 수행자의 회담기, 재건축택 설계 담당자의 뉴욕 연수기 등의 공적 업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체험담이 그것이다. 여러 계기로 미국을 체험하지만, 『희망』의 미국체험담은 체험 유형별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유학이나 교환 교수 등의 생활 체험담이다. 전숙희, 이진호, 이희승, 백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박인환, 김용환 등의 예술가들의 여행담이다. 세 번째는 경제회담, 군사시설 견학 등의 공적 업무의 시찰이나 공공행사 참여자의 체험담이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미국체험담 기사는 표1(『월간 희망』),

3) “미국독립 기념일에 영국 공산당들이 하이드파크에 모여서 영국이 미국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시위”를 하는 내용이 있다. 김원규, 『자유인의 구미여행기』, 『월간 희망』, 1955.8, 148쪽.

4) 윤성렬, 『미국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주간 희망』, 1957.5.31, 46쪽.

표2(『주간 희망』)와 같다.<sup>5)</sup> 월간과 주간에 실린 미국체험담은 내용 면에서는 그 방식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하나로 묶어 논의를 진행한다.<sup>6)</sup>

〈표 1〉 『월간 희망』 기사

계재 년월	기사 제목 및 저자	체험 목적
1952년 10월	[명사수상륙 - 책을 먹고 사는 동물 - 정일형(의원, 유학 경험)]	유학
1952년 2월	[내가 본 미국 - 해군 소장의 미 해군 시찰 - 부족한 것은 물량과 시설뿐 - 김성삼(해군 소장, 미해군 초청)]	시찰
1954년 9월	[동서 기행 - 내가 본 구미 7개국 - 이영준(국립경찰병원장)]	시찰
1954년 10월	[미국풍물 야화 - 이진호(고려대 법대 교수, 미국무성 초청)]	교환교수
1954년 12월	[미국풍물첩 - 미국 여행 중 실수한 일 - 이희승(서울대 교수, 미국무성 초청)]	교환교수
1955년 1월	[미국풍물첩 - 미국 여행 중 실수한 일 - 이희승 (서울대 교수, 미국무성 초청)]	교환교수
1955년 7월	[세계풍물첩 - 아메리카와 런던, 파리 - 전풍진(서울대 교수, 제지공학 연구차)]	시찰
1955년 7월	[아메리카 잡기] 서북미주의 항구를 돌아 - 박인환(시인, 대한해운공사 직원)	여행
1955년 8월	자유인의 구미여행기 - 김원규(서울중고등학교 교장, 한미재단)	시찰
1955년 11월	건축으로 본 미국 - 유진호(교통부지정 한미재단 재건축택 설계자)	시찰
1955년 11월	와싱턴 견문 잡기 - 한갑수(공군본부 비서실장 한갑수 중령, 한미군사경제원조 회담)	회담

5) 『주간 희망』의 이국체험담의 계재 유형도 여러 가지이다. 명사수상록, 내가 본 미국, 동서 기행, 미국풍물 야화, 희망방담, 세계풍물첩, 미국만화기행 등 다양한 형식의 미국 관련 체험담이 계재되어 있다. 특집 형태의 기사, 인터뷰, 단순 정보 전달을 위한 풍물기 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다.

6) 『월간 희망』과 『주간 희망』의 관계는 이국체험담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기획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잡지의 체제와 내용이 시기별로 달라지므로 월간과 주간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대중서사연구』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9-55쪽)과 『주간 희망』의 도전과 매체전략』(『대중서사연구』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161-201쪽)을 참조할 것.

계재 년월	기사 제목 및 저자	체험 목적
1955년 12월	미국만화기행 · 김용환(만화가, 대한만화가협회 회장)	여행
1956년 1월	미국만화기행 · 김용환(만화가, 대한만화가협회 회장)	여행
1956년 3월	[미국통신브로드웨이의 촌뜨기(상) · 전숙희(수필가, 아세아 문화재단 지원)]	유학연수
1956년 4월	[미국통신브로드웨이의 촌뜨기(하) · 전숙희(수필가, 아세아 문화재단 지원)]	유학연수
1956년 7월	[미국유학생들의 생활 진상 ·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미국이야기 · 특히 유학생들의 생활 · 전숙희(수필가)]	유학연수
1956년 10월	도미 시찰 중의 가지가지 일화 · 박기병(육군 소장, 15사단장, 미국방성 초청)	시찰
1958년 1월	미국과 일본의 텔레비전 견문 · 최창봉(DBC 연출과장)	시찰

〈표 2〉 『주간 희망』 기사

계재 연월일	『주간 희망』 기사	체험 목적
1956년 1월 12일	미국인상기 · 김창집(한국출판협회장, 미국무성 초청)	시찰
1956년 1월 16일	[뉴욕통신 · 전숙희(수필가, 아세아문화재단 지원)]	시찰
1957년 7월 19일	[희망방담] 조경희 대담 · 내가 본 아메리카인 · 유치진(극작가, 록펠러 재단)	시찰
1957년 8월 23일	[내가 본 미국, 미국인] 아메리카는 움직이고 있다① · 조재천(대구시 민의원, 미국무성 초청)	시찰
1957년 8월 30일	[내가 본 미국, 미국인] 아메리카는 움직이고 있다② · 조재천(대구시 민의원, 미국무성 초청)	시찰
1957년 9월 20일	[세계풍토기] 남부 아메리카	소개
1958년 7월 11일	[희망 인터뷰] 미국 미국인의 인상 · 백철(중앙대 교수, 평론가, 미국무성 초청)	교환 교수
1958년 9월 19일	애교와 매력의 냉전장 · 롱비치에서 보고 느낀 것 · 노라노(의상 디자이너, 미스유니버스 대회 참여)	행사 참여

## 2. 미국체험담의 기획

미국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여행기가 본격 등장한 것이 1950년대이지만, 미국체험담이 흔하지는 않았다. 나절로는 민관식의 『방미기행』 출판 관련 기사에서 “원조의 덕으로 외국 시찰이 대유행처럼 되었는데 대개는 얻은 지식을 혼자 가슴에 간직하고 국내인사에게 나눌 용의가 없는”<sup>7)</sup>데, 민관식이 기행문을 출간해서 체험담을 나누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 이 기사에서 당시 미국 체험담이 희소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대는 미국 등의 먼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사건이었다. 일본조차도 비행기로 세 시간이 소요되던 시기였다. 때문에 미국으로 향하는 것은 용기를 수반하는 모험이었다. 서울고등학교 교장인 김원규가 한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육시찰로 세계일주를 떠날 때는 이기봉, 백낙천, 구용서 등의 지인이 배웅을 나올 뿐 아니라 학생 수천 명이 환송해줄 정도였으며<sup>8)</sup>, 이건호 교수가 미국 국무성 초청을 받아 교환교수 자격으로 미국을 갈 때도 그의 환송 기사가 신문에 실릴 정도였다.<sup>9)</sup> 미국의 원조로 여러 지식인이 연수나 시찰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여행에 관한 대중의 동경이 더해지면서 잡지 『희망』에서도 미국 체험담의 기획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희망』의 편집진은 미국이 ‘습관, 풍습, 사고’<sup>10)</sup>가 다르기에 그 체험담

7) 나절로, 「민관식 著 방미기행 왜 그들은 잘사나」, 『경향신문』, 1957.10.9, 4쪽.

8) 김원규, 「자유인의 구미여행기」, 『월간 희망』, 1955.8, 146쪽.

9) 「이건호 교수 도미환송회」, 『경향신문』, 1953.9.10, 2쪽.

10) “습관, 풍습, 사고의 방식이 우리 민족과 다른 이역에서 씨가 체험한 여러 가지 사항을 흥미와 주의로 살펴보자!”, 이희승, 「미국 풍물기·미국 여행 중 실수한 일」, 『월간 희망』, 1954.12, 54쪽.

이 관심이 간다는 것을 내세운다. 또한, 체험담을 청탁할 때 경험한 내용을 ‘주관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청<sup>11)</sup>하는 것에서, 미국에서 느낀 ‘정서의 일단’과<sup>12)13)</sup>, ‘미국의 발전상을 보며 느낀 소회’<sup>14)</sup>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점 등에서 개인적 감상과 주체적 판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사를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 미국에 관련된 기사는 체험담뿐 아니라 개별 코너의 형태로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리버 박사<sup>15)</sup>나 조오지 M. 데이리<sup>16)</sup>와 같은 미국인 필자의 글과 꺄럽 기사를 토대로 한 미국인의 기질을 소개하는 글까지 등장하는데, 이는 잡지의 노선 변화

- 
- 11) 전풍진은 제지 공학 시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지만, “편집자의 요구로 각 나라 풍속과 직접 경험한 내용을 주관적으로 서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전풍진, 『삼국풍물첩, 아메리카와 런던, 파리』, 『월간 희망』, 1955.7, 172쪽.
- 12) 편집자, 『주간 희망』, 1956.1.16, 14쪽.
- 13) 전숙희의 미국 체험 기사는 2회로 나뉘 『월간 희망』에, 원고 게재 요청 편지는 『주간 희망』에 게재되어 있다.
- 14) “미국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하는 의구를 새삼 느낀다. 그만큼 오늘의 미국은 그 생태에 있어 다양한 것이며 그 발전이 눈부시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미국과 미국인을 한국의 한 정객이 보고 왔다. 그의 눈에 비끼고 귀에 거슬리고 가슴에 느껴진 아메리카와 아메리칸은 과연 무엇일까?”, 조재천, 『내가 본 미국, 미국인』, 『주간 희망』, 1957.8.30, 20쪽.
- 15)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는 이승만 전기(SyngmanRhee: The Man Behind the Myth)를 쓴 사람이다. 1954년에 초판이 출간되었고 1956년에 박마리아가 번역한 『리승만박사전: 신비에 싸인 인물』이라는 책이 한국어판으로 출간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출판본은 황정일 역의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이 있다. 시큐러스 대학 수사학 교수였고 이승만과는 1942년 워싱턴에서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승만의 사설고문단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라는 평가이다. 정용욱, 『홍보, 선전, 독재자의 이미지 관리-1950년대의 이승만 전기』, 『세계정치』 8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7, 11-51쪽 참조.
- 16) 조오지 M. 데이리가 쓴 체험담 『외국이미지 추억 깃든 남양의 섬들』(『주간 희망』, 1956.7.27, 28쪽); 『마카오』(『주간 희망』, 1956.10.21, 24쪽)가 게재되어 있으며, 『명동의 명사 조오지 M. 데이리』(『주간 희망』, 1956.9.7, 2쪽)라는 제목으로 조오지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 기사도 실려 있다.



와도 관련이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희망』의 편집 노선은 ‘오락지에서 대중교양지로서의 정체성’<sup>17)18)</sup>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미국 관련 기사를 다양화하여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체험담도 대중 교양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발굴 기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9)20)</sup> 이는 당시 이승만 정부의 문화 노선과도 일치한다.<sup>21)22)23)</sup> 세계적인 미국화의 분위기에서 미국은 일종의 학습의 대상이 된다.

- 
- 17) 월간 『희망』은 창간 초기인 1951년 무렵 ‘문예와 오락’의 대중종합잡지에서, 1957년 무렵 ‘독자를 위한 독자의 잡지’, 1959년 무렵 건전한 ‘대중 교양지’, ‘흥미와 교양의 대중잡지’로 잡지의 방향을 표명하고 있다.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24쪽 참조.
- 18) 최미진은 『주간 희망』의 대중성 강화 전략은 뉴스의 연성화, 인터뷰 기사의 확대, 대중교양과 취향의 다변화를 꾀했다.”고 진단한다. 최미진, 『『주간 희망』의 도전과 매체 전략』, 『대중서사연구』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161-162쪽.
- 19) 1955년 9월 15일 자 경향신문 ‘대중잡지의 현재와 장래’라는 기사에는 당시 『희망』 편집장 이상룡이 밝힌 『희망』의 편집 방침이 실려 있다. “『희망』과 『야담』에서는 지극히 광범하고 무난한 대상 같기도 하지만 특정한 지식, 취미, 연령 등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락, 취미, 교양, 작업, 연령 그리고 지역(농촌 도시)을 달리하는 독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생리에 맞고 생활에 ‘푸러스’ 해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중잡지의 현재와 장래』, 『경향신문』, 1955.9.15, 4쪽.
- 20) 이봉범은 1950년대는 『희망』과 같은 개인 상업 자본의 대중지들이 잡지 시장을 주도 하면서 잡지가 전문적인 독자보다는 폭넓은 층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이 구성된다고 분석한다.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407-408쪽.
- 21) 『희망』의 창간사를 공보처장 갈홍기가 썼다. 박태균, 『해방 후 잡지 해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16쪽. ([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ma&fileName=intro\\_ma.pdf](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ma&fileName=intro_ma.pdf), 최종검색일 2017.5.27.)
- 22) 이승만 관련 기사들이 반공, 승공의 관점에서 제시된다. 김연숙, 『1950년대 잡지 『희망』에 나타난 개인 표상』, 『대중서사연구』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65쪽 참조.
- 23) 『월간 희망』 1954년 4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79회 탄신 기념 옥중 수기가 실려 있다. 그리고 편집후기에는 ‘각하의 이념을 구현하자’는 언급을 한다. “날이 갈수록 점차 힘차게 나아가시는 대통령 각하의 영자(英姿)를 이렇게 뵈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없는 기쁨과 영광이 아닐 수 없으리라. 길이 받들고 각하의 이념을 끝내 구현하자.” 편집후기, 『월간 희망』 4월, 168쪽.

『희망』도 이러한 요구에 호응하여 미국 배우기 열풍을 교양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미국 체험담을 수용해낸다. 말하자면, 미국 체험담은 궁극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 문화의 교육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즉, 미국체험담을 기획한 편집진은 단순히 미국에 관한 소개가 아니라, 미국을 체험한 필자들의 감상과 판단을 통해 주체적 판단을 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대중종합잡지를 표방하며 상업적 성공을 이어가던 『희망』의 독자 중심 편집노선과 상승 작용을 하며 적극적으로 잡지에 수용된다.

그런데 한 필자의 온전한 여행기의 형식이 아니라 대중잡지의 기고문이라는 점에서 전편을 아우르는 인식을 중심으로 1950년대의 미국체험에서 나타나는 미국에 관한 인식과 주체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물질문명, 공동체 문화, 현실 재인식의 큰 틀에서 1950년대 잡지 『희망』에 나타난 지식인 주체들의 미국 체험을 통한 자기 인식의 지향을 읽어낸 후, 필자나 체험 서사의 의미 지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동경과 경계의 양가성과 현실 재인식

『희망』의 미국 체험담은 도시 공간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물질문명, 미국의 공동체 문화, 미국 체험을 통해 발견한 한국의 현실 재인식을 통한 자기반성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정이나 공간 경험이 먼저 드러난다는 점에서 체험담도 기행문의 일종이지만, 『희망』의 미국 체험담은 여행의 출발과 경유지별 감상을 서술하는 형식도 있고 유학이나 연수, 회담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형식이 일률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필자가 새로운 공간 경험에서 발견된 감상을 서술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체험담은 일종의 공간 경험의 물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간, 시간, 주체의 세 차원<sup>24)</sup>인 ‘물리적 공간 경험’, ‘공동체적 공간 경험’, 그리고 ‘주체에 표상된 공간의 존재적 경험’<sup>25)</sup>의 관점으로 서사 양상을 분석한다.

### 3-1. 문물에 대한 동경과 경계

『희망』의 미국체험담에서는 공간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문물에 대한 동경이 잘 드러난다. 뉴욕의 거대한 마천루 숲을 거닐면서 느끼는 사회나 일상에서 자동화된 문물에 적응하기 위한 실수나 분투기 등이 미국체험담에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물질문명의 풍요로움에 대한 동경은 당대 문화인들의 미국 견문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이다.<sup>26)</sup>

김용환은 ‘뉴욕만화기행’에서 열차의 식당 칸이나 열차 내의 화장실, 담배 자동판매기 등에서 고도로 과학화하고 자동화된 문물을 소개한다.<sup>27)</sup>

24) 조명래, 『해제: 앙리 르페브르의 리듬분석』, 앙리 르페브르, 『리듬분석』, 정기현 역, 갈무리, 2013, 18-20쪽 참조.

25) 르페브르에게 공간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산물이며,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 ‘재현된 공간(representational space)’, 세 가지로 분류된다.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86-88쪽.

26) “아메리카에 대한 동경, 그중에서도 특히 물질문명의 풍요로움과 혜택에 대한 동경의 담론을 가장 구체적이고 실감 나게 전달한 것은, 당시 아메리카를 직접 목격하고 돌아왔던 문화인들의 이른바 견문기 형식의 기행 서사들이었다.”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 푸른역사, 2012, 254쪽.

27) 김용환, 『미국만화기행』, 『월간 희망』, 1955.12, 24-28쪽.



이희승도 각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로커의 작동법을 몰라 실수한 일 등을 언급하면서 자동화가 만든 미국의 일상을 부러워한다.<sup>28)</sup> 전숙희의 글에서도 미국에서의 일상적응기가 섬세하게 서술되고 있다.<sup>29)30)31)</sup> ‘물질문명의 고도한 발달에서 오는 혜택’과 ‘시설이 좋아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만큼 편리하다’는 것, 교통, 부업 시설 등의 자동화, 대학의 과학 설비 등이 부럽다<sup>32)</sup>는 백철의 소회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의 글에서처럼 과학화된 일상 공간의 문물이 미국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독자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된다. 미국식 민주주의 이념의 설과

28) 이희승, 『미국 풍물기·미국 여행 중 실수한 일』, 『월간 희망』, 1955.1, 148쪽.  
 29)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관찰력으로 이루어진 이 미국기행문은 미국의 부엌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일반적 기행문과 유를 달리하고 있다.” 박영준, 「전숙희 미국기행 이국의 정서」, 『경향신문』, 1956.12.4, 4쪽.  
 30) 전숙희의 경우 지식엘리트로서의 정체성 때문인지 다른 남성 필자들과는 다른 젠더적 관점을 노정하지는 않는다.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남성과 여성이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다르게 체험하므로 전숙희의 일상 체험담의 의미를 젠더적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한울, 2010, 38-39쪽 참조.  
 31) 김양선은 전후 여성 작가들의 세계여행기를 분석하면서 이들이 문명사회에 대한 경이와 한국의 저개발 상황에 관한 우려는 드러내지만, ‘여성으로서의 차별화된 경험과 인식이라는 젠더적 관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전후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225쪽.  
 32) 백철, 『미국 미국인의 인상』, 『주간 희망』, 1958.7.11, 27쪽.

나, 재건 의지 표명보다는 자동화된 일상 공간의 체험이 실제적인 재건의 미래를 그려 보인다는 점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 일상문화, 생활 세계적 물건과 감각은 그 자체로 미국적 가치라는 추상적 이념을 표상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기에”<sup>33)</sup> 미국식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화된 도시는 몇몇 필자들에게는 한국의 도시와 대비되면 비현실적인 풍경 정도로 느껴진다. 이들에게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도시 풍경은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서 실정에 맞지 않고’<sup>34)</sup> 마천루의 도시 공간은 꿈을 꾸듯 ‘요지경 속을 헤매는 느낌’<sup>35)</sup>을 준다.

고도의 병원 기계 설비와 2,5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미국 병원을 바라보면서 이영준은 그가 원장으로 있는 경찰병원과 너무 차이가 나서 ‘막연한 감’<sup>36)</sup>이 든다고 고백한다. “귀신 장난같이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열리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백 년 세월의 차이가 있다.”<sup>37)</sup> 그러므로 미국의 도시 공간은 이들에게는 ‘비장소’이며, 동화되지 못하는 이질적인 공간으로 대상화되어 경계심을 표하게 만든다.<sup>38)</sup>

더불어, 김성삼은 이러한 과학화의 이면에 인간적인 측면이 사장되지

33) 이선미, 『미국적 가치의 대중적 수용과 통제의 메카니즘 - 1950년대 대중서사의 부부/가족 표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49쪽.

34) 이영준, 『동서 기행 - 내가 본 구미 7개국』, 『월간 희망』, 1954.9, 171쪽.

35) “사십 층, 오십 층 고층 건물이 햇볕을 가로막고 흡사히 깊은 계곡을 걷는 것 같을 때 내 정신은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요지경 속에서 헤매는 것” 같다. 김창집, 『미국인상기』, 『주간 희망』, 1956.1.12, 42쪽.

36) 이영준, 『동서 기행 - 내가 본 구미 7개국』, 『월간 희망』, 1954.9, 171쪽.

37) 김창집, 『미국인상기』, 『주간 희망』, 1956.1.12, 43쪽.

38) 이들이 미국에서 체험한 공간은 ‘전통적인 장소(인간적인)가 아니라 단지 스쳐 지나가는 공간일 뿐인 비(非)장소성’이다. 정헌목은 마르크 오제의 비장소를 “장소가 없는 곳’이 아니라 ‘전통적인(인간적인) 장소가 아닌 곳’으로 분석한다. 정헌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121쪽.

나 앓을까 하는 소회를 내놓는다. “사회적 기반이 편리일점에 집결되어  
혹시 충족의 궁극에서 영혼이 희박하여지는 일이 있다면 인간으로서 빈  
국에 허덕이는 것보다 어느 편이 더 불행할 것인가”<sup>39)</sup>라고 자문하며 자  
동화가 불러올 인간 영혼의 황폐화를 염려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필자  
는 도시 공간에 경도되어 과학화와 자동화를 실현해야 할 우리의 미래  
로 진단하고 있다.

공간의 비장소성뿐만 아니라 시간의 다중절합(다중의 유기적 결합)도  
문제가 된다. 서울에서 동경까지 3시간이 걸리던 시절에, 미국 내에서  
비행시간이 6시간 걸리는 곳도 있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의 광대함<sup>40)</sup>과  
더불어 단일시간 체제에 익숙한 우리의 시간관념마저 바꿔놓는다.<sup>41)42)</sup>,  
작은 나라 단일 문화권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미국의 광활한 공간은 물  
리적인 시간의 절대성도 흔드는 경험인 것이다.

시간 관념마저 흔드는 광활한 공간과 자동화된 미국의 도시 공간은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심리적 차원에서는 단지 이질적  
인 공간으로 느껴진다. 경도는 되지만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헤테로  
토피아<sup>43)</sup> 같은 장소이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다른 장소, 축제나

39) 김성삼, 『내가 본 미국-해군 소장의 미 해군 시찰, 부족한 것은 물량과 시설뿐』, 『월  
간 희망』, 1952.2, 114쪽.

40) 조재천, 『내가 본 미국, 미국인』, 『주간 희망』, 1957.8.23, 20쪽.

41) “자기 시계를 주마다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차 시간 등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같은 정차장에서도 다른 주로 가는 기차의 시간이 달라서 낭패를 보았다. 선로  
회사까지 달라서 선로회사가 소속된 곳의 시간을 따라서 같은 정거장의 열차들이 다  
른 표준시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희승은 시간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에 대하여 단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희승,  
『미국 풍물기 - 미국 여행 중 실수한 일』, 『월간 희망』, 1955.1, 149-150쪽.

42) “세계시간 수립은 철도회사의 몫이었는데, 만약 1870년경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  
까지 여행하는 사람이 통과하는 중소도시의 지역시간에 매번 시계를 새로 맞춘다면,  
그는 200번도 넘게 맞추어야 했을 것이라고 한다.” 스티븐 킨, 『시간과 공간의 문화  
사 1880-1918』, 박성관 역, 휴머니스트, 2004, 43쪽.

이벤트를 위해 마련된 일시적인 공간이다. 즉, 『희망』의 미국체험담에 그려진 미국의 도시 공간은 다른(hetero)만 있고 장소(topos)는 없는 비현실적인 헤테로토피아이다.

### 3-2. 공동체 문화에 대한 동경과 경계

미국 생활에서 경험한 미국인과 미국문화에 관한 동경과 경계도 체험담에서 나타난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미국인의 도의심에 관한 찬사이다. 정거장 대합실에 가방과 카메라를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카메라와 가방이 그대로 있고<sup>44)</sup>, 기차 여행 중 트렁크를 분실했는데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며<sup>45)</sup>, 백화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는<sup>46)</sup> 일화를 전하며 미국인의 도의심에 찬사를 보낸다.

또한, 이들에게 비친 미국인은 ‘겸손, 친절, 예의가 있으며, ‘자기의 자유와 남의 자유와 인격을 모두 존중하여 문화수준이 높고, ‘근실성과 책임감, 도의와 신용을 생명과 같이’ 아는 사람들<sup>47)</sup>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인에 관한 찬사는 미국의 제도에 관한 찬사로도 이어진다.

이건호는 여자 감화원(교도소)을 둘러보고 미국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후, 미국은 ‘인간 값이 비싼 나라’이며, ‘정부가 개인을 높게 치는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자유와 평등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얼마나 이상적인 나라인가를 역설한다.<sup>48)</sup> 정부나 제도의 차원에서도 사람에 관

43) ‘다른(heteros) 장소(topos)’, 비장소성의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로 볼 수 있다.

44) 김용환, 『미국만화기행』, 『월간 희망』, 1955.12, 24-28쪽.

45) 이희승, 이희승, 『미국 풍물기·미국 여행 중 실수한 일』, 『월간 희망』, 1955.1, 153쪽.

46) 이희승, 『미국 풍물기·미국 여행 중 실수한 일』, 『월간 희망』, 1955.1, 153쪽.

47) 김창집, 『미국인상기』, 『주간 희망』, 1956.1.12, 43쪽.

48) “인간 값이 비싼 나라, 실로 인간을 존중한다. 인간의 값은 개인피차간에 상대방의 값을 높게 치고 정부가 개인의 값을 높게 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인간이 인간

한 존중의식이 배태되어 있음을 서술한다. 이들이 경험한 미국인의 도의심과 미국의 제도적 평등은 전쟁 이후 재건 상황에서 한국과 단순 비교될 수는 없지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는 낯설고도 부러운 경험이며, 동경의 대상이 된다.

반면, 여러 필자가 인종 갈등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논조를 드러낸다. 김원규는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흑인문제를 꼽고 있다. 흑인들은 거주지와 학교, 버스 칸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가 남부지역에 갔을 때 만약 대법원에서 백인과 흑인을 통합하여 교육하라고 판결한다면 어떡하겠냐고 백인 교장선생님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아예 공립을 없애고 사립을 만들겠다고 대답하는 걸로 보아 “흑인문제는 미국에 있어서는 암(癌)”<sup>49)</sup>과 같은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백철 또한, 남부의 뉴올리언스나 텍사스 같은 곳에서는 여러 장소에서 공공연한 흑인차별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아주 ‘거슬리는 풍경’<sup>50)</sup>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흑인 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백인우월주의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미국 남부의 도시에서는 동양인이 밤에 간이식당에 들어가면 술취한 주정뱅이가 ‘니가(검둥이)는 이런 데 들어오는 게 아니야’라고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다.<sup>51)</sup>

---

위에 서지 않고 인간이 인간 밑에 서지 않을 때 자유가 있으며 평등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피차에 욕설과 멸시와 강압과 혹은 비굴을 일삼을 때 인간 값은 폭락하는 것이며 자유와 평등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미국의 재판을 보고 느낀 것은 역시 인간의 값이 비싼 나라라는 것이다.” 이진호, 『미국풍물 야화』, 『월간 희망』, 1954.10, 113쪽.

49) 김원규, 『자유인의 구미여행기』, 『월간 희망』, 1955.8, 148쪽.

50) 백철, 『미국 미국인의 인상』, 『주간 희망』, 1958.7.11, 29쪽.

51) 편집부, 『세계 풍토기 남부 아메리카-비국제적인 남부의 토배기』, 『주간 희망』, 1957.9.20, 28쪽.



인종차별 문제 외에도 가족의 분열과 소년범죄가 성행하는 사회 풍조에 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백철은 소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물질문명의 폐해이며, 동양과 달리 인간적이고도 가족적인 면이 없으므로 가정에서조차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소년 범죄가 횡행한다고 지적한다.<sup>52)</sup> 이렇듯, 인종차별, 소년 범죄의 풍조 등의 공동체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서는 미국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이는 당시 과학과 근대 문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대중 담론 공간에 퍼져 있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sup>53)</sup> 1950년대 문명과 발전 담론에 대한 인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미국 자체에 대한 비판의 논조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경계심은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필자들이 미국인의 도의심이나 청교도 정신 등의 근검한 생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이나 가족공동체의 파괴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미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도 동경과 경계의 양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3-3. 현실 재인식과 재건 희구

여행은 타자에게서 주체를 발견하는 하나의 기제이다. 박인환은<sup>54)</sup>

52) 백철, 『미국 미국인의 인상』, 『주간 희망』, 1958.7.11, 28-29쪽.

53) 1950년대는 서구의 물질문명과 과학 문명, 근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중 담론 공간에서 널리 퍼져 있던 상황이었다. 김종태, 『발전시대 이전 발전 담론의 위상-1950년대 대중매체의 발전, 문명인식』, 『한국사회학』 49호, 한국사회학회, 2015, 126쪽 참조.

54) 박인환은 미국 체험담과 함께 ‘여행’, ‘태평양에서’, ‘어느 날’, 세 편의 시를 『희망』에 실는다. 박호영은 ‘무정향의 막연한 떠남’이 박인환의 여행의식이라고 진단한다. 박

『희망』에 미국체험담과 함께 게재된 그의 시 ‘여행’의 마지막 연에서 여행자의 관점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이즈러진 회상  
불멸의 고독  
구두에 남은 한국의 진흙과  
상표도 없는 〈공작〉의 연기  
그것은 나의 자랑이다  
나의 외로움이다  
또 밤거리  
거리의 음료수를 마시는  
포틀랜드의 이방인  
저기  
가는 사람은 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포틀랜드에서)

-박인환의 〈여행〉<sup>55)</sup> 마지막 연

이 시의 ‘저기, 가는 사람은 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타자의 눈에 인식된 주체의 모습에 관한 관심을 드러낸다. 이 시에서처럼 타자가 주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하고 주체를 재인식하는 내용이 미국체험담에 드러나 있다.

대부분의 필자가 미국인들의 시선에서 발견하는 것은 한국에 관한 무관심과 무지이다. 한국은 미국인들에게 단지 전후 재건이 필요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며, 여타 나라에 비교해서도 중요한 국가가 아니

호영, 『김기림과 박인환의 여행의식 비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33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0, 135쪽.

55) 박인환, 〈여행〉, 『월간 희망』, 1955.7, 183쪽.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갑수는 한미 군사경제 원조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지원이 일회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미국에게 원조를 청할 여치가 없어질까'<sup>56)</sup> 두려워하면서 '동남으로 살림을 하는 상황'<sup>57)</sup>을 벗어날 방책이 없음을 한탄한다.

조재천은 워싱턴 정치가의 사람들조차 한국에 관심이 없음을 알고는 절망감을 느끼고<sup>58)</sup> 백철도 이들이 한국에 관심이 없으므로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반성을 다져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sup>59)</sup> 다짐한다. 이렇게 미국인의 눈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인식한 후에는 이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불식시키고 한국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이 체험하는 미국의 현실은 한국을 직시하게 하는 잣대가 된다. 조재천은 토머스 제퍼슨의 '신문 없는 정부, 정부 없는 신문'이 언급되어 있는 책을 캠브리지 대학가에서 발품을 팔아 구했다고 전하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역설한다. 그런데 그곳을 떠날 무렵, '장충단 공원에서 야당계 강연 방해 사건'을 듣게 된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의 미약한 민주주의 현실을 개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60)</sup> 그리고 미국 국회도

56) 한갑수, 「워싱턴 견문 잡기」, 『월간 희망』, 1955.11, 140쪽.

57) 한갑수, 「워싱턴 견문 잡기」, 『월간 희망』, 1955.11, 140쪽.

58) 상원의원 M씨가 한국민이 중국어나 일본어 중 어느 언어를 쓰느냐고 물을 정도로 이들이 한국에 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한국정부와 한국민이 정신을 차려 일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조재천, 「내가 본 미국, 미국인」, 『주간 희망』, 1957.8.30, 20-21쪽.

59) 백철, 「미국 미국인의 인상」, 『주간 희망』, 1958.7.11, 27-29쪽.

60) "미국은 이미 공고히 구축된 민주기반 위에서 고속도 자동차를 타고 나날이 전진하고 있는데 비해서 한국은 자전거라도 타고 전진해야 할 터인데 민주역행뿐 아니라 미약한 민주 기반마저 허물려는 자들이 속출한다는 것은 얼마나 통분한 일인가." 조재천, 「내가 본 미국, 미국인」, 『주간 희망』, 1957.8.23, 21쪽.

서관에 북한 신문은 최신 호가 있는데 남한 것이 없다며 공보처를 비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을 개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박인환은 유학생들이 어리석은 우월감에 빠져있거나 정치적 견해 때문에 한국 이민자들끼리 단합이 안 되는 상황 등을 목격하고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한국의 현실을<sup>61)</sup>, 유진호는 ‘민족 공동의 이익에는 무관심’<sup>62)</sup>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이러한 내용은 체험 대상에 관한 감상과 평가가 아니라 자기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발전상은 한국의 암울한 상황을 반추하게 하여 현실을 재인식하는 거울이 된다.

여성의 근로의식을 비교하는 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확인된다. 미국 여성은 일도 많이 하고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여성을 위하는 나라이니까 ‘여성들이 꺾다나 일삼고 남편이나 부려먹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망발’<sup>63)</sup>이라고 언급한다. 프랑스 여대생은 집에서는 집안일도 열심히 한다<sup>64)</sup>고 말하며 여성의 근로를 강조한다.<sup>65)</sup> 더불어, ‘외국산으로만 몸을 감고 다니는 우

61) “끝으로 그곳에 사는 이민들은 서로 대립되어 잘 만나지도 않는 모양이다. 일본인들은 잘 합심하고 있는 데 비하여 한국인들은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이웃에 살면서도 만나지도 않는다. 여기 관해서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도 없지만 한국인은 어디가든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잘 분열되는 모양이다.” 박인환, 『아메리카 잡지 서북미주의 향구를 돌아』, 『주간 희망』 1955.7, 185쪽.

62) 유진호, 『건축으로 본 미국』, 『월간 희망』, 1955.11, 95쪽.

63) 김창집, 『미국인상기』, 『주간 희망』, 1956.1.12, 42쪽.

64) 문신주, 『프랑스 여대생의 이모저모』, 『월간 희망』, 1953.9, 65쪽.

65) 남녀평등에 관한 인식 변화도 보여준다. 유진호는 재건축택 설계담당자로서 미국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한다. 전쟁으로 소실된 주택이 60만 호나 되는 상황에서 재건축택 담당자로서 그는 미국의 건축물에 관해 서술하면서 우리나라 주택, 특히 부엌의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만약 남자가 부엌일을 했다면 훨씬 효율적인 공간이 되었으리라 언급하는데, 금남의 구역이었기에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인이

리가 한없이 부끄럽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실업자가 없는 호주인들의 근검성<sup>66)</sup>이나, ‘식민지를 잃고 식료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내핍생활을 하는 영국인<sup>67)</sup>들을 본받아 근로와 내핍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이들의 현실 재인식과 자기반성은 재건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물리적인 의미의 재건이든 재건을 위한 정신적인 의식 개조이든 재건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재건의 길을 모색하는 체험담의 지향을 드러낸다.

즉, 『희망』의 미국체험담에서 필자들은 미국의 물질문명에 대한 동경과 경계, 공동체 문화에 대한 동경과 경계를 모두 드러내며 양가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미국에 관해서 양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통적이며, 체험을 현실을 재인식하고 자기반성적 모습을 보이는 등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건 희구는 체험담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 4. 미국체험 서사의 주체와 의미

1950년대의 미국 체험은 미국의 적극적인 기획과 원조로 이뤄진다. 실제 미 공보원은 남한의 관료, 언론인, 예술가, 대학교수 등의 지식인들에게 미국 연수와 시찰을 지원했다.<sup>68)</sup> 이것은 미국이 냉전체제를 유지

---

없을 때나 병이 들었을 때는 남편이 요리를 하고 부엌은 공동의 공간이므로 ‘명실공히 민주생활’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동등한 삶을 부러워한다. 유진호, 「건축으로 본 미국」, 『월간 희망』, 1955.11, 95쪽.

66) 김성광, 「적도 넘어 오천리 호주·말과 양이 뛰노는 천혜의 자연」, 『주간 희망』, 1955.4.2, 177쪽.

67) 김원규, 「자유인의 구미여행기」, 『월간 희망』, 1955.8, 149쪽.

68) 허은, 「미국의 대한 문화 활동과 한국사회의 반응: 1950년대 미국정부의 문화 활동과 지식인의 대미인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87-95쪽 참조.

하기 위해 서유럽에서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관리하던 방식에 비견된다. 연수와 시찰을 통해서 미국화의 당위와 미국적 이념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sup>69)</sup> 그런데 큰 틀에서 미국화의 당위를 내면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일률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 체험 동기나 필자별로 그 내용은 상이하기 때문이다.

『희망』에 게재된 미국 체험담의 필자들 대부분이 미국이나 미국 관련 재단의 지원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당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학계 방면의 저명한 인사들로서 공적 회담이나 미국무성 등의, 공적인 재단의 지원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군사경제 원조회담을 위해 방문한 한갑수, 미국방성 초청으로 방문한 박기병, 미국무성 초청을 받은 김창집, 조재천, 이진호, 백철, 이희승, 한미재단 지원을 받은 유진호, 김원규, 아세아문화재단 지원을 받은 전숙희 등이 그 예로 대부분 공적인 업무 차원이나 여러 경로의 지원으로 미국 체험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체험 서사의 초점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필자별로 자유롭게 서술되며, 개별 서사는 각각의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체험 목적이나 직업별로 서사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크게 미국에 대한 동경과 경계, 자기반성, 재건 방안의 모색 세 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전체 지형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개별 글에서는 단순 미국 문화나 문물의 소개와 감상 차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체험을 통해 자기반성과 아울러 한국 현실에 대한 비판의

69) 손더스는 CIA가 서유럽 지식인들을 통해서 문화적 냉전을 어떻게 주도했는지 분석하는 내용에서 “특정 주체가 사실은 누구나가 바라는 대로 움직인다 해도 스스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게 되는 것”이 CIA가 말하는 선전의 의미라고 역설하면서 이 작업의 은밀함을 강조한다. 프랜시스 스톨너 손더스, 『문화적 냉전』, 유광태·임태원 역, 그린비, 2016, 20-21쪽.

식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재건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상 경험의 서사, 자기반성의 서사, 재건 희구의 서사가 체험 주체별로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차이를 예각화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김용환, 전숙희, 이희승 등의 미국 문물 소개와 일상 적용 기이다. 미국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체험담에 서술된 생활공간의 과학화된 문물은 독자에게 동경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이 연수 등을 통한 장기 방문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저자들의 글과는 구별된다. 미국식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내용이나 재건의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보다는 일상의 체험 공간에 관한 서술이 재건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글은 주로 유학이나 장기적인 체류를 한 교수, 문인, 예술가의 글이 중심이다.

두 번째는 박인환, 조재천, 유진호 등의 자기반성의 서사로 나아가는 글이다. 박인환의 경우 해운공사 사장의 배려로 당시 다니던 직장인 해운공사의 원외사무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공적인 업무나 지원받은 방문이 아니어서인지 박인환의 글에서는 ‘수중엔 돈도 없이, 집엔 쌀도 없는 詩人’으로서의 사적인 애상과 비판이 자유롭게 드러나 있다. 편집진이 요구한 ‘정서의 일단’이 그려진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우월의식과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는 한국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sup>70)</sup> 개인의 애상에서 한국인의 분열상과 한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70) “끝으로 그곳에 사는 이민들은 서로 대립되어 잘 만나지도 않는 모양이다. 일본인들은 잘 합심하고 있는 데 비하여 한국인들은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이웃에 살면서도 만나지도 않는다. 여기 관해서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도 없지만, 한국인은 어디가든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잘 분열되는 모양이다.” 박인환, 『아메리카 잡지 서북미주의 향구를 돌아』, 『주간희망』 1955.7, 185쪽.

박인환은 시인으로서 회사의 지원으로 방문하였기에 미국과 한국의 현실에 관한 비판적인 서술이 자유로운 상황이고, 조재천은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드러내는 차원이고, 유진호는 재건 주택 실무자로서 자기반성이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지만, 직업군에서나 체험 목적에서는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재건 의지를 표명하거나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재건의 의지를 표명하는 이영준, 김원규, 전풍진, 김성삼 등의 글이 있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유진호, 김원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직업군이나 체험 목적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영준은 재건을 위한 성실한 근로를<sup>71)</sup>, 김원규는 재건 의지를<sup>72)</sup> 강조한다. 전풍진은 미국의 연구소를 둘러보고 나서 연구는 ‘인간의 두뇌와 노력’에 달려 있으니 우리도 희망이 있다고 언급하고<sup>73)</sup>, 김성삼은 해군 장군으로서 한국 해군이 물량 면에서는 뒤지지만 인적 자원 면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강력한 자부심과 투지’로 ‘정신력 무장’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는 반석’과 같을 것이라고 자신하며<sup>74)</sup> 재건 의지를 보여준다.

유진호는 재건주택의 형태를 현장 설계자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김원규는 귀국하면 국산을 활용하고 내핍을 생활화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표명하면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산장려

71) “모두 재건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투미한 준법정신 아래 그날그날을 꾸준히 일하는 그들에게는 멀지 않아서 빛날 것이다.” 이영준, 『동서 기행·내가 본 구미 7개국』, 『월간 희망』, 1954.9, 175쪽.

72) 김원규, 『자유인의 구미여행기』, 『월간 희망』, 1955.8, 151쪽.

73) 전풍진, 『삼국풍물첩, 아메리카와 런던, 파리』, 『월간 희망』, 1955.7, 173쪽.

74) 김성삼, 『내가 본 미국·해군 소장의 미 해군 시찰, 부족한 것은 물량과 시설뿐』, 『월간 희망』, 1952.2, 116쪽.



와 내핍'을 생활화해야<sup>75)</sup> 한다는 생활적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에서 재건의 희망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재건 회구라는 미국 체험담의 지향에서 재건 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유진호의 경우는 방문 목적 자체가 재건 주택 설계자로서의 연수 성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필자에게서 재건은 의지나 구호에 그치고 있다.<sup>76)</sup> 즉, 재건 의지를 표명하는 체험담의 필자도 교육자, 정치인, 군인 등 다양한 면모를 보이므로 직업군이나 체험 주체나 목적별로 일률적이지는 않다.

이렇듯, 잡지 『희망』의 체험담은 일상 체험기나 재건 회구의 표명을 통해 재건상을 그리고는 있지만, 주체의 직업군이나 체험 목적별로 서사가 확연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체험담이 온전한 여행기의 형식이 아니라 잡지의 조각 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지도층이기는 하지만, 인식 지향이 다양한 사람들의 체험기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잡지 『희망』의 미국 체험담은 전체를 하나의 미국 교양 담론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5. 『희망』의 재건 호들로지

1950년대가 한국인들이 미국의 '일상문화와 지식체계를 수용·내면화한 시기<sup>77)</sup>라는 점에서 볼 때, 『희망』의 미국체험담은 두 가지 점에서

75) 김원규, 『자유인의 구미여행기』, 『월간 희망』, 1955.8, 149쪽.

76) 한영현은 당대 사회의 재건 담론과 논의의 깊이를 『희망』이 놓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영현, 『잡지 『희망』이 상상한 전후 재건도시』, 『대중서사연구』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238쪽.

77) 강소연, 『195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2006, 110쪽.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1950년대 지식인들이 미국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물질문명이든, 공동체문화이든 동경과 경제의 양가적 태도를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체험이 대부분 미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체험담에서 보여주는 미국에 관한 인식은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이는 원조를 받아 외적 재건을 해야 하는 외부적 상황은 인식하지만 재건 모델로서의 미국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미국체험담의 ‘미국 교양’으로서의 의미이다. 『희망』은 한국전쟁기 수도 부산에서 대중종합잡지<sup>78)</sup>를 표방하며 탄생했다. 당시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지속해서 월간지를 발간할 수 있었고 ‘한국 최초의 본격적 주간지’인 주간 『희망』도 창간하는 등 상업성을 확보해냈다. 편집후기에서는 높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며, 독자들의 관심 또한 기사를 넘어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졌다.<sup>79)</sup> 이렇듯, 잡지의 지속성과 대중성 등으로 판단할 때 『희망』은 명실공히 성공적인 대중종합잡지였다. 『희망』의 이러한 대중 교양 노선 등이 만들어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희망』의 미국체험담이다. 원조로 미국 여행이 유행처럼 되었으나 체험담의 공유는 활발하지 않던 상황에서 『희망』의 미국 체험담은 미국을 학습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중 교양으로서 의미가 있다.

『희망』의 미국 체험 서사는 단지 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재인식하고 자기반성으로 이끄는 역할도 한다. 미

78) 1952년 2월 28일 동아일보 1쪽에 실린 『희망』의 광고에는 ‘대중종합잡지’로 되어 있다.

79) 1957년 9월 『월간 희망』의 ‘독자의 소리’에는 편집 과정과 구성원에 관한 안내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다. 잡지의 인기는 제작 과정과 구성원에 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진다.

국의 도시와 공동체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체험 주체들은 타자의 시선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미국의 원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미국식 자본주의 문화를 학습한다. 그리고 미국 문물을 동경하면서도 인종차별, 가족의 개인화 등에서는 비판적 시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관한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건 모델로서의 미국에 관한 확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잡지 『희망』의 미국 체험 서사는 재건모델로서의 미국을 안내하고 국가 재건의 목표를 위해 내핍을 교양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희망』의 미국 체험담은 재건의 호돌로지를 형성하고 있다. 레빈은 ‘요구되는 조건과 인간의 요구가 목표까지 가는 길의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sup>80)</sup>는 의미에서 호돌로지를 말한다. 미국체험담에서 재건 의지는 서사의 출발점이며, 종착지이다. 재건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미국의 원조와 미국식 민주주의는 피할 수 없이 요구되는 ‘극단적 조건’이었다. 그런데 미국식 재건이 몇몇에게는 ‘최상의 길’로 보이기도 하지만 필자마다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희망』의 미국체험담은 당대 독자들에게 미국문화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근검’과 ‘내핍’을 교양하여 재건에 이르기 위한 여러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이 글은 잡지 『희망』에 게재된 미국체험담 분석을 통해 당대 지식인들의 미국에 관한 양가적 인식과 주체의 자기반성을 통한 재건 희

80) “호돌로지적 공간은 인간이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체험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목표점까지의 다양한 도달 가능성이라고 표현했던 요소가 추가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포함한다. 그래서 두 지점을 잇는 최단 거리인 직선 대신 레빈의 표현에 따르면 ‘최상의 길’이 등장한다. ‘최상의 길’은 여러 가지를 뜻할 수 있는데, 그 길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 중략 -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최상의 길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요구되는 극단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이기숙 역, 에코리브르, 2011, 254-255쪽.

구 지향을 읽어낸다는 점, 미국체험담이 『희망』의 대중교양지로서의 역할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희망』의 이국체험담에 관한 논의는 이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 문헌

### 1. 기본 자료

『월간 희망』, 1953.7 - 1962.8.

『주간 희망』, 1955.12 - 1958.9.

### 2. 논문과 단행본

강소연, 『195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2006, 107-136쪽.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9-55쪽.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 - 전후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205-230쪽.

김연숙, 『1950년대 잡지 『희망』에 나타난 개인 표상』, 『대중서사연구』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57-93쪽.

김종태, 『발전시대 이전 발전 담론의 위상 - 1950년대 대중매체의 발전, 문명인식』, 『한국사회학』 49호, 한국사회학회, 2015, 101-129쪽.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연구회 역, 한울, 2010.

박태균, 『해방 후 잡지 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16쪽. ([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ma&fileName=intro\\_ma.pdf](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ma&fileName=intro_ma.pdf), 최종검색일 2017.10.10.)

박호영, 『김기림과 박인환의 여행의식 비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33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0, 121-139쪽.

스티븐 켄,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 - 1918』, 박성관 역, 휴머니스트, 2004.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이기숙 역, 에코리브르, 2011.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397-454쪽.

이선미, 『미국적 가치의 대중적 수용과 통제의 매커니즘 - 1950년대 대중서사의 부부/가족 표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45-87쪽.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 푸른역사, 2012.

- 정수진, 『한국인의 세계감각과 자의식의 형성 - 1950년대 관광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0호, 비판사회학회, 2011, 201-225쪽.
- 정용욱, 『홍보, 선전, 독재자의 이미지 관리 - 1950년대의 이승만 전기』, 『세계정치』 8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7, 11-51쪽.
- 정현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107-141쪽.
- 조명래, 『해제: 앙리 르페브르의 리듬분석』, 앙리 르페브르, 『리듬분석』, 정기현 역, 갈무리, 2013.
- 최미진, 『『주간 희망』의 도전과 매체 전략』, 『대중서사연구』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161-201쪽.
- 프랜시스 스톨너 손더스, 『문화적 냉전』, 유광태·임태원 역, 그린비, 2016.
- 한영현, 『잡지 『희망』이 상상한 전후 재건도시』, 『대중서사연구』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203-242쪽.
- 허 은, 『미국의 대한 문화활동과 한국사회의 반응: 1950년대 미국정부의 문화활동과 지식인의 대미인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3. 신문 기사

- 『대중잡지의 현재와 장래』, 『경향신문』, 1955.9.15, 4쪽.
- 『이건호 교수 도미환송회』, 『경향신문』, 1953.9.10, 2쪽.
- 『해외여행제한, 변장관 자숙 요망』, 『경향신문』, 1952.3.27, 2쪽.
- 나절로, 『민관식저 방미기행 왜 그들은 잘사나』, 『경향신문』, 1957.10.9, 4쪽.
- 박영준, 『전속희 미국기행 이국의 정서』, 『경향신문』, 1956.12.4, 4쪽.

## Abstract

### A Study of the American Experience Described in the Travel Narratives of the Magazine *Huimang* (Hope) in the 1950s

Choi, You-Hee (Chung-Ang University)

*Huimang* was a general magazine in the 1950s. Its monthly issues were published from 1951 to 1962, and its weekly issues were published from 1955 to 1958. This paper analyzes the adoration and alert points made in the magazine's monthly and weekly US-experience stories.

The 1950s was the age of Americanization around the world. Countries that were in need of postwar reconstruction, such as Korea, received the aid of the United States (the US) and learned about the American experiences of their country's intellectuals. *Huimang's* editorial staff urged authors to submit subjective judgments, not just social presentations, of the US. The intention of the editorial team seems to have been to coordinate perceptions of the wider social spectrum of Americanization. It seems the magazine did this because it wanted to balance South Korea's desires for Americanization and distance from the US.

This paper reconsiders the reality of Korea'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to the US while revealing the ambivalent attitudes of Americans regarding the substance, the civilization and the admiration of community culture of South Korea. The most prominent difference was in the Korean discovery of physical space. Those who saw skyscrapers in the US were shocked; considering Korea's state after the Korean War, scenery was something that Koreans were not used to.

Although there is praise for American morals and puritan traditions, this paper critically looks at the phenomenon of community destruction in the US, seen in the country's racial discrimination and family divisions. This paper also considers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others. It finds others are indifferent to and ignorant about Korea and questions how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country. Moreover, this paper finds middle ground between the reality of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ality of South Korea; it criticizes Korea's undemocratic reality.

In the context of the aforementioned American-experience narratives, the hodology of reconstruction was created, and in 1950s Korea, *Huimang* focused on finding the quickest route to reconstruction. Whether the magazine's American-experience writers were international students, aid-talk negotiators, architects who developed reconstruction housing designs, or single travelers, and whether its writers were sympathetic or unsympathetic with American culture, the extreme condition of South Korea's national reconstruction was the driving force of *Huimang* writers. Therefore, *Huimang* was a record of adoration and alert points regarding reconstruction hodology. This paper is significant because it shows how when the Americanization of South Korea's popular culture progressed, intellectuals of the 1950s concretely reflected on American experiences.

(Key Words: adoration, alert, ambivalence, reconstruction, hodology, austerity, Americanization, experience narrative, travel narrative, magazine, *Huimang*)

논문투고일 : 2017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3일

수정완료일 : 2017년 11월 12일

계재확정일 : 2017년 11월 15일